



#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 무엇인가요?



「신앙의 빛」 (*Lumen fidei*, 2013),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2015)에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세 번째 회칙



2020년 10월 3일  
아시시에서 인준

## 무엇을 다루나요?



- ▶ 최근 몇 년 동안 교황님이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주제인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와 관련된 문제들
- ▶ 2019년 2월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과 공동으로 서명한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에서 다룬 주제들

## 무엇을 제안하나요?



- ▶ 이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강조한 사회 회칙입니다
- ▶ 형제적 사랑의 교회 가르침에 대한 보편적 차원의 숙고를 다룹니다
- ▶ 목표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 회칙은 같은 혈육을 공유하는 여행의 동반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인류를 이루도록 장려합니다

## 누구에게 보내는 회칙인가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이 성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

## 회칙의 제목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 ▶ 'Fratelli tutti'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성 프란치스코, 「권고들」 (*Admoniciones*), 6,1).
- ▶ 성인은 복음에 따른 삶의 방식을 권고하며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 성인은 지리적, 공간적 장벽을 초월한 사랑으로 모든 형제와 자매를 초대했습니다.

## 회칙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 ▶ 회칙 「Fratelli tutti」는 들어가는 말과 8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 들어가는 말

제1장: 폐쇄된 세상 위에 드리운 암운

제2장: 길 위의 이방인

제3장: 열린 세상을 꿈꾸고 구현하기

제4장: 온 세상에 열린 마음

제5장: 보다 나은 정치

제6장: 대화와 사회적 우애

제7장: 새로운 만남의 길

제8장: 우리 세상에서 형제애에 봉사하는 종교들



###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오소서 성령님!

이 땅의 모든 민족 안에서 빛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모든 이가 소중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한 인류 안에  
다양한 얼굴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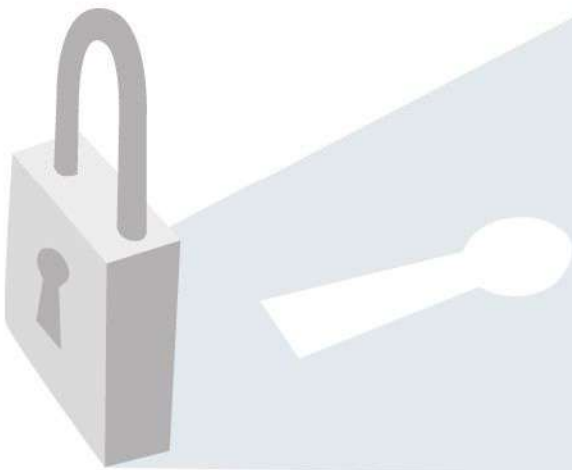
## 폐쇄된 세상 위에 드리운 암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보편적 형제애를  
침해하는 오늘날 세대에 주목하며  
말씀하십니다.

**“더욱 세계화된 사회는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지만,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폐쇄된 세상 위에  
드리운 암운을  
보면서 어떤 측면에  
주목해야 하나요?**

- ▶ 희망의 부재와 사회에  
만연한 불신
- ▶ 대화와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극화
- ▶ 버려지고 “희생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
- ▶ 권리의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
- ▶ 윤리의식의 저하와 영적  
가치의 약화



오늘날 우리가 증거해야 할  
위대한 단어의 조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 정의민주주의 일치

회칙 「*Fratelli tutti*」는 이 모든 문제를 마주함에 있어  
**“가까이함과 만남의 문화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선한 씨앗을  
뿌리십니다



공동선, 사랑, 정의, 연대는  
매일 실현돼야 합니다



희망은 더 위대한 이상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가로막는 개인적  
안락,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 길 위의 이방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 ▶ 강도들
- ▶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 ▶ 상처입고 버려진 사람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회칙  
「*Fratelli tutti*」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저들 중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 |                                   |                       |                                  |                                     |
|-----------------------------------|-----------------------|----------------------------------|-------------------------------------|
| <b>1</b>                          | <b>2</b>              | <b>3</b>                         | <b>4</b>                            |
| 무관심을<br>정당화하려는<br>결정론과<br>운명론의 주장 | 이웃에<br>무관심한<br>사회적 세태 | 사회적<br>배제를<br>묵인하고<br>조장하는<br>세상 | 우리가<br>목격하고<br>있는 사회·<br>정치적<br>무관심 |

회칙 「*Fratelli tutti*」는 상처입은  
사회의 회복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그 이웃이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슬을 끊고  
다리를 건설합니다

상처입은 채 길에 쓰러진 이를 만나면,  
당신은 반대쪽으로 지나갈 건가요, 돕기 위해  
멈춰 설 건가요?

수많은 고통과 상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길은 착한 사마리아인을 본받는 것입니다



#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 열린 세상을 꿈꾸고 구현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마태 23,8)

### 보편적 형제애로의 부르심은 열린 마음을 요청합니다

- ▶ 인간은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존재의 충만한 의미를 구합니다
- ▶ 사랑은 소외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웃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역량을 요구합니다
- ▶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사랑은 “사회적 우애” 를 기초로 삼습니다



선을 증진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가치를 증진하는 걸 뜻합니다.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 ✓ 공동체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 ✓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거슬러 투쟁하기
- ✓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 및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요구하기
- ✓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 ✓ 연대와 봉사를 위해 국제 윤리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참된 평화 마련하기

[ 모든 사람은 소중하며,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



#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 온 세상에 열린 마음

### 보편적 형제애는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1

이주민과 모든 추방된 이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2

우리 모두 함께 구원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될 수 없다는 인식을 키우기

3

연대 안에서 모든 민족의 발전을 추구하는 전지구적인 법, 정치, 경제 질서를 모색하기

### 무상성이란 무엇인가요?

- ▶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 ▶ 어떤 행위에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
- ▶ 현실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들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포용하는 것



“우리 세상에서 다양한 나라의 참된 가치는 더 큰 인류 가족의 일부로 생각할 줄 아는 역량으로 평가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 모든 건강한 문화는 본질적으로 열려 있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정신과 마음을 열기

수많은 인류 공동체가 보편적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기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존재이기도 한 인간

국가군群 내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게 가능한가요?



#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 보다 나은 정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마태 22,36-40 참조)

좋은 정치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나요?

- ▶ 공동선에 봉사하는 정치
- ▶ 오직 표만 얻기 위해 애쓰지 않는 정치
- ▶ 개인의 성장을 위한 방법을 도모하는 정치
- ▶ 다양한 생산활동과 기업의 창의성을 장려하는 경제를 증진하는 정치
- ▶ 여러 학문 분야와 대화하며 넓은 안목으로 사유하는 정치

회칙 「*Fratelli tutti*」는 사회적 애덕을  
근본정신으로 삼는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 ✓ 우리 모두가 실천하도록 부름 받은 사랑의 문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쓰기
- ✓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 ✓ 애덕은 진리의 빛, 곧 이성과 신앙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 애덕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선을 사랑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든  
이의 선익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게 합니다”

정치적 활동 안에서 모든 사람은 신성하며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만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 대화와 사회적 우애



### “대화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 ▶ 곁에 있기
- ▶ 표현하기
- ▶ 듣기
- ▶ 바라보기
- ▶ 타인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 ▶ 공통점 찾기



### 만남의 문화에 따르면,

우리 각각은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쓸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소모품이 아닙니다

### 대화를 장려하는 다원적 사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 2 실제적이고 항구한 평화를 보장하면서 다양한 현실을 통합합니다
- 3 호의의 분위기 속에서 그 자체로 고유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 ▶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보이는 공격성
- ▶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독백
- ▶ 상대방을 쉽게 믿지 않거나 모욕하는 행위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역량을 전제로 합니다**



#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 새로운 만남의 길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만남을 쇄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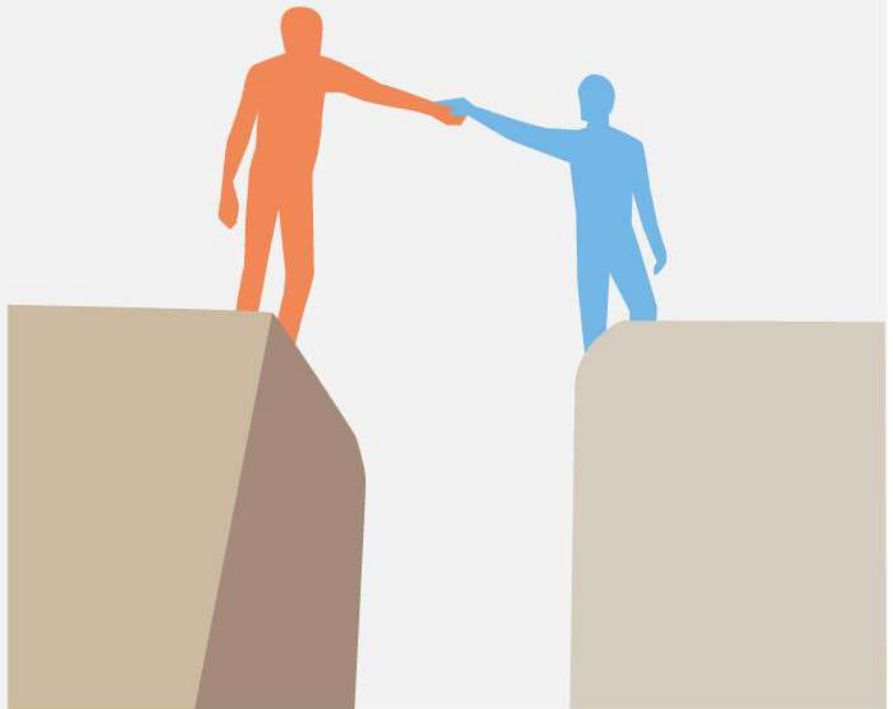
- ✓ 참된 화해
- ✓ 개성을 거부하지 않는 공동의 프로젝트
- ✓ 모든 이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 보호, 회복
- ✓ 가장 가난한 이, 약한 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 ✓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에 대한 재인식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폭력이나 무관용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일흔일곱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마태18,22 참조)

### 참된 용서와 화해는:

- ▶ 대화를 통해 갈등과 싸움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주어집니다
- ▶ 상호 미움과 반목의 행위에서 멀어집니다
- ▶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장려합니다
- ▶ 단순히 잊어버린다거나 처벌받지 않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 ▶ 복수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만남을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문화와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극복하도록 말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 우리 세상에서 형제애에 봉사하는 종교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는  
형제애를  
건설하는데 귀중한  
기여를 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지상 여정의  
동반자이며 또한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박탈은 인류를  
빈곤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문이 열린 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1

교회는 다리를  
건설합니다

2

교회는 장벽을  
허물입니다

3

교회는 화해의  
씨앗을 뿌립니다

### 종교 간 평화의 여정은 가능합니다

- ▶ 평화를 이룩하는 출발점은 하느님의 시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 ▶ 종교적 확신의 기초에 폭력의 자리는 없습니다
- ▶ 하느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겸손한 예배는 생명, 존엄,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사랑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의 거룩한 일치의 심오한 친교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형제적 사랑의 물결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된 사랑을,  
나자렛 성가정을 통해서,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된  
그 사랑을 저희에게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말씀을 살아가고,  
인간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잊혀지고 버림받은 이들의 근심 안에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일어난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 땅의 모든 민족 안에서 빛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모든 이가 소중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한 인류 안에  
다양한 얼굴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대화하는 사람” 이  
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진정한 중재자로서  
평화의 구축에 협력하기  
위해 말입니다.